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14 중국 불교가 피어난 땅, 낙양



정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낙양 일대서 출토된 북위 시대 화려한 불상 중 일부이다. 당시 낙양의 영녕사 9층탑은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한 자태여서 낙양성 100리 밖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그 탑에 오르면 눈 아래 안개구름 사이로 집 안들의 구석구석이 한 눈에 들어온다고 했다.

용문석굴 조상기에서 드러났듯 500년대 초반 중국 낙양 땅에 나타난 불교의 모습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낙양은 후한시절(A.D 70년)에 불교가 전래돼 중국 최초의 사찰과 최초의 승려가 머문 땅으로 알려져 있다. 낙양의 불교는 북위인들이 이 곳으로 천도하며 급격히 발달된다. 마치 통일신라 시기 불국토로 표현됐던 경주와 같이 말이다.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는 이러한 화려한 불교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한다.

북위 세종 선무제의 연창(延昌) 연간(512-515)에 중국 전국의 사찰 수는 모두 13,727곳이었다. 이것은 효문제 태화(太和) 원년(477) 6,478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약 40년 동안에 북위 영토 내에 사찰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불교교단이 급속히 증가하고 불교신앙이 깊이 침투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수도 낙양에는 금색 찬란한 대가람이 건립되고 불교의례가 화려하게 거행됐으며, 불교는 지배계급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깊이 퍼졌다. 이러한 낙양 불교문화의 정점은 동아시아 최대 탑을 보유한 영녕사(永寧寺)의 건립이라 할 수 있다.

### 영녕사 건립으로 북위불교 정점

양현지(楊衒之)는 547년 경 이 책을 쓰며 전란으로 불타버린 낙양에서 지난날의 영화를 회상한다. <낙양가람기>에서 양현지는 '황제가 천명을 받아 낙양에 도읍을 정하자 독실한 불교신자가 많아져 불법의 교화가 더욱 성행했다. 왕후나 귀족들은 신발을 벗듯이 코끼리와 말을 바쳤고, 평민이나 귀족들은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듯 재물을 희사했다. 그리하여 사원이 즐비하게 됐고, 탑들이 나란히 늘어서 됐다. 사찰은 드넓었고 불경을 강의하는 법당은 아방궁처럼 장엄하였다. 어찌 화려하게 수놓은 비단옷을 나무에게 입고, 붉은색 자주색으로 흙을 채색하는데 그쳤을 뿐이겠는가.' 라고 기술하고 있다. <낙양가람기>의 기록대로 낙양은 엄청난 불교문화를 자랑했다. 흙까지 채색했다는 묘사에서 살릴 수 있듯이 당시 낙양의 불교는 절정기에 다다랐다.

다. <위서> '석로지'는 영녕사의 건립에 대해 '희평(熙平) 연간(516-527)에 성안 서쪽에 영녕사를 세웠는데 영태후(靈太后)는 친히 백관을 거느리고 초석을 깔고 첨간(刹竿)을 세웠다'고 전한다. 불탑은 9층으로 높이가 120m나 되었다. 건립 비용 역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다. 이 절은 534년 북위가 멸망하던 해에 벼락을 맞아 대화재로 불타버렸다. 현재 낙양 땅에는 당시 북위의 열말을 담은 영녕사의 잔재가 고스란히 묻혀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1979년부터 1994년까지 영녕사지를 발굴해 1996년에 보고서 내놨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탑의 방형 기단의 가로, 세로는 각각 38.2미터였다고 한다. 규모면으로 보아도 어마어마한 불탑이 당시 낙양의 하늘에 솟아 있었을 것이니 그 위용은 말로 하지 않아도 미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59

#### 불일암의 적막

불일암으로 오르는 대나무 숲길은 바람이 다니는 길이였다. 사람의 발자국보다는 수군거리는 바람소리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길이였다. 불일암 대나무 숲길은 침묵이 고이는 길이였다. 어떤 언어도 그 바람소리 앞에서 뜻을 가질 수 없었다. 발자국도 없이, 언어도 없이 걸어간 숲길 끝에 불일암이 있었다. 부처님 모신 집 한 채와 밀집모자 벗어놓은 요사 한 채가 가람비에 젖고 있었다.



한 동안 불일암에 살았던 범정 스님은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고 했다. 새들이 떠나간 숲처럼 스님이 떠나 암자는 적막했다. 숲에 남은 적막도 암자에 깃든 적막도 모두 떠난 이가 남긴 분명한 흔적이었다. 적막도 흔적이었다.

###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 제21도 선남선녀발원역토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삼화는 아미타불의 국토에 태어나려고 발원했거나 현재 발원하거나 미래에 발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극락에 태어나므로 모든 선남자, 선녀인 등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도에 왕생하기를 발원하여야한다는 내용이다. 정도왕생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 장엄을 판각했다. 화면의 왼쪽에 아미타부처님이 새겨져 있으며, 그 앞에는 비구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들이 발원하는 모습이 판각돼 있다. 이 도상은 13번째 목판 원판의 후반부에서 14번째의 목판 원판 절반 이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리불야,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의 세계에 나기를 이미 발원(發願)하였거나, 지금 발원하거나, 장차 발원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아득다라삼막삼보리(無上正等覺)에서 물러서지 않고 극락세계에 벌써 갔거나, 지금 나가거나, 장차 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리불야, 신심이 있는 선남자 선녀인들은 마땅히 극락세계에 날 것을 발원하여야 한다." (舍利弗 若有人 已發願 今發願 當發願 欲生阿

彌陀佛國者 是諸人等 皆得不退轉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 於彼國土 若已生 若今生 若當生 是故 舍利弗 諸善男子善女人 若有信者 應當發願生彼國土) 믿음, 발원, 수행은 정도 수행법의 '세 가지 자랑(資糧: 여행의 비용과 식량)'이라고 한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여행 중 필요한 의약, 식량, 의복, 자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듯이 정도수행자들도 굳은 발원을 위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수행이 없는 믿음과 발원은 공허하다. 마땅가지로, 믿음과 발원이 없는 수행은 기준과 방향이 없어 길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믿음, 발원, 수행은 먼 곳까지 정도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랑(資糧)'이 된다. 결국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중생들은 먼저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는 원을 발해야 하고, 원을 발해서 정도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염불을 해야 하는 것이다. 믿음과 발원과 수행은 바로 한 몸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로 위신력을 믿고 의심 없는 발원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염불 수행하여야 한다. 아미타부처님의 위신력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지혜에만 매달려 선(善)을 닦아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여 자유가 없는 철보의 방에 갇히지는 말 일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제21도: 선남선녀발원역토장엄(善男善女發願德土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cm.

**다라니수저** 사찰공양실·불자용수저 **"다라니"시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저 **불자가정에서 사용하게 품질은 최고! 디자인은 세련!**

**다라니수저 신제품 출시기념 공장도가 3,000원 시판**

200set 이상 주문시 사찰명 또는 스님 범명, 원하시는 글씨를 새겨 제작해 드리며(실비), 선물 포기에 활용하게 수저 Set마다 고급 비닐로 포장 되어있다. 다라니 수저는 백화점에서 Set당 7,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공장도 가격 set당 3,000원에 사찰과 불자가정에 보급하고 있다. 포장단위는 가정용 20Set, 사찰용 50Set, 100Set 단위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793-0023  
농협 : 793-0023-1234-08 고기영

**고영산업**

## 그 신비한 힘을!

**운(運)이 나쁜사람 공통점?**  
"조상이 저승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승에서 저승에도 정리정돈이 안되며 발복이 안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빙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쇄 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에게는 유전자 공명(共鳴)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 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처럼 일어난 사례입니다. 항상 자신의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손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 성공 하는 것입니다.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기, 태아령) 영가의 장애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흥망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 등이 도자기를 쳐소에 두고서 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 운이 상승 되고 있습니다. 운이 새고 돈의 흐름이 막히며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로 운기가 발복되는 놀라운 이치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 주고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혼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고가에 거래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치우천왕 검색

**신비한 힘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터지는 치우천왕 조상천도 도자기 출현**  
"치우천왕 기가 나오는 도자기" 대박상품!! 가격: 250만원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치우천왕 도자기는 상품번호 제 40-0812033호 이므로 무단 복제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내마음의 절) ■ 전화: 1661-2575